

정읍 개최 '제56회 전라예술제' 둘러싸고

전북예총 · 지역예술인, 이해관계 충돌

56회 전라예술제 행사 개최를 둘러싸고 정읍지역예술인들과 전북예총이 파열음을 내고 있다.

정읍지역예술인들은 "전북도 2억원과 정읍시 9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전라예술제는 오는 4월 정읍 개최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전북예총은 정읍지부에 행사 예산의 10%인 2,850만원만 책정하고, 6일간의 행사 중 단 2개의 프로그램만을 배정하는 등 지역 예술인들을 거의 배제한 상태에서 그들 주관 하에 일방적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와 비슷한 형태의 전국규모 행사인 전국연극제의 경우에는 문화예술위원회와 지자체에서 동시에 예산을 지원받아 매년 전국 각 지역을 순회

정읍예술인들

"행사예산 10%만 책정 지역 예술인들 거의 배제"

VS

전북예총

"지역사람들이 추가돼선 안돼 사업계획서조차 제출 안해"

하며 개최되지만 행사를 진행하는 주체는 해당 지역의 지회가 되고, 협회는 일정부분의 가이드라인만 제시하는 형태로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과는 비교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연극협회 정읍지부의 정찬호 지부장은 "지역 문화 예술 교류 확대와 지역 문화 격차를 최소화하겠다는 기획의도가 무색하게 정읍시의 예산이 일부 투입되는 행사에 정읍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의 생각과 아이디어가 전혀 반영되지 못한다는 것은 행사의 존재 의미를 뒤집을 수 있는 문제"라며 "지역예술인들의 깊은 상심을 배려하지 않고 전북예총이 이러한 구태를 일삼는다면 정읍연극협회는 이번 전라예술제 행사에 일

체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전북예총은 "전라예술제를 지역에서 실시하는 것은 수준 높은 예술을 지역민과 공유함은 물론 예술인 저변확대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며 "지역사람들이 추가돼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예술제와 관련해 사업계획서를 28일까지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이들은 사업계획조차 제출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예산의 경우, 다른 지역은 2,500만원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정읍예총에 2,900만원을 지원하기로 이사회에서 통과됐다"며 "정읍지역예술인들이 행사에서 소외되고 있다거나 예산이 적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정해은 기자

헌법, 모든 국민들의 필수과목

신간도서 · 김승환 교육감 '헌법의 귀환'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이 권력을 쥔 몇몇 인물들의 입맛에 맞게 좌지우지 되면서 헌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축박됐다. 이런 까닭으로 헌법이 무엇이고, 국민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국민이 왜 헌법을 알아야 하는가 등이 화두로 떠올랐다.

이와 맞물려 헌법학자가 쓴 헌법해설서가 출간됐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헌법의 귀환-김승환 교육감이 들려주는 헌법이야기>를 펴냈다.

이 책은 지난해 봄부터 여름까지 17회 순회강연을 펼쳤던 헌법이야기 특강 내용을 정리해 엮었다.

김 교육감은 "국민들이 헌법에 관심을 갖기 위해서는 아마도 가깝고 친숙한 것으로 헌법을 다시 한 번 돌아보는 일이 먼저일 것"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이야기처럼 재미있게 헌법을 풀어내고자 순회강연을 토대로 읽기 쉽게 리라이팅 했다"며 출판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저자는 헌법 조문을 열거한 후 각 조항의 의미를 사례와 함께 소개한다. 헌법 130개 조문의 예를 들며, 왜 우리는 영장 없이 체포되어서는 안 되는가를, 또한 미란 다원칙처럼 잘 알면서도 막상 헌법과 연결시켜 사고하지 못하는 상식의 편린들을 헌법의 정신으로 일관성 있게 통합하여 하나의 체계로 완성시킨다.

그는 학술적인 해설이 아닌 헌법적 이슈들을 인문학적 접근으로 쉬이 풀어내며, 사례와 결맞은 사진들도 수록함으로써 법전의 교과서 같은 고리타분함을 벗고자 했다.

저자는 "인간은 존엄하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국가는 국민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와 같은 헌법의 정신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국민이 그 헌법의 정신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헌법을 알아야 인권을 지킬 수 있고 헌법의 준엄한 명령의 수행 여부를 감시할 수 있다"고 했다. /정해은 기자

'Hello!! 아프리카' 전 주말 연장

군산예술의전당에서 진행되고 있는 'Hello!! 아프리카' 전 관람객 1만여 명을 돌파했다.

이에 군산시는 그동안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24일과 25일 기존 오후 5시 운영을 오후 6시 30분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Hello!! 아프리카' 전은 겨울방학을 맞이해 군산예술의전당에서 마련한 2017년 첫 기획 프로그램으로, 미지의 땅 아프리카에 대해 보다 쉽고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Hello!! 아프리카' 전의 인기요인은 아프리카 케냐출신 해설사의 친절한 설명과 생활상이 묻어나는 화귀한 전시품,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으로 오락성과 교육성을 동시에 만나 볼 수 있어 관객이 집 단체 예약과 함께 가족단위의 재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아프리카 케냐에서 온 해설사 율리우스 씨는 "군산시민들의 따뜻한 정을 느끼며 서아프리카인의 삶과 문화를 함께 나눌 수 있어 너무 행복하다"며 "남은 일주일 동안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다"고 밝혔다.

지난 1일부터 진행된 이번 전시는 오는 28일로 종료되며 27일 월요일은 휴관한다. /군산=문정근 기자



수제작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고 산업화하기 위한 '전주 핸드메이드시티 워크' 행사가 지난 20일 막을 올린 가운데, 핸드메이드의 무한한 가치와 전주가 지닌 가능성에 대해 고민하고 머리를 맞대는 '전주디자인 크래프트 캠프'가 21일부터 열리고 있다.

'전주 디자인 크래프트 캠프' 개최

수제작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고 산업화하기 위한 '전주 핸드메이드시티 워크' 행사가 지난 20일 막을 올린 가운데, 핸드메이드의 무한한 가치와 전주가 지닌 가능성에 대해 고민하고 머리를 맞대는 의미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공방운영자와 공예작가, 콘텐츠 전문가 등 전주에서 활동하는 디자인·공예 분야 종사자 20여명이 참여해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된 '전주디자인 크래프트 캠프'가 바로 그것.

지난 21일부터 오는 24일까지 4일간 이어지는 이번 캠프는 전주 핸드메이드 시티를 이끌어갈 종사자들의 핵심 역량 강화와 향후 시민대학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목표로 기획된 프로그램으로, 캠프에 참가한 공방 운영자와 공예 마케팅 전문가 등은 함께 전주 핸드메이드시티의 창의적 실현방안과 노하우 등을 공유하고 논의해나가고 있다.

특히 시는 단순한 강좌식 캠프에서 벗어나 멘토링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해 향후 강사들과 수강생들이 유대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은 향후 전주를 핸드메이드시티로 만들 콘텐츠 개발에 머리를 맞출 예정이다.

이와 관련, 22일 진행된 캠프 둘째 날 프로그램에는 수공예와 디자인 분야의 마케팅과 홍보, 브랜딩 전략이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먼저, 장응복 노모 컬렉션 대표는 "한국

공예 디자인 재해석, 현대적 감각과의 절충, 브랜딩&마케팅 전략을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마케팅 노하우 등을 참가자들과 공유했다.

이어, 안강은 Inne Core 대표도 해외 수공예 트렌드와 해외 진출 전략, 마케팅 전략 등을 소개했다.

이번 디자인 크래프트 캠프는 23일과 24일에도 각각 '디자인 크래프트 협업 사례'와 '1인 기업 전략, 리메이크와 창조적 비즈니스 모델'을 주제로 미래 핸드메이드 산업 전략을 함께 고민하는 다채로운 강좌로 채워질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21일 문을 연 첫 강좌에서는 홍성덕 전주대 교수(역사문화콘텐츠학과)와 은병수 은카운슬엔비움 감독이 각각 '전주, 도시 정체성, 그리고 디자인'과 '핸드메이드가 미래다'를 주제로 강연해 관심을 모았다. /김영재 기자

정읍시, 28일 통합문화이용권 신청

정읍시가 28일부터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를 통해 저소득층의 문화생활 지원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신청을 받는다.

시에 따르면 통합문화이용권 제도는 저소득층에게 공연, 문화상품 구입과 철도와 국내 항공권, 고속버스 예매는 물론 스포츠 관람 입장권을 구매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해 주는 사업이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 중 6세 이상(2011.12.31. 이전 출생자)이다.

신청방법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방문에 지원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인생나눔교실' 등 3개 국가공모사업 선정

전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 이병천)은 국가공모사업에 인생나눔교실 운영 등 3개 사업이 선정돼 국비 5억여 원을 확보했다.

재단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한 인생나눔교실 운영사업 4억원, 무지개다리사업 5천8백만 원,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지원사업 6천9백만 원에서 총 5억 2천4백만 원을 확보함으로써 지역문화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한 고두보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인생나눔교실'은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선배 세대와 새내기 세대간 삶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인문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전북도문화관광재단은 이번 공모에서 호남권 주관처로 선정됐다.

'무지개다리사업'은 농촌 고유의 문화공동체를 형성하고 문화다양성을 확산하는 것으로 전북문화다양성 '청춘극장'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농촌지역 어르신과 청년문화 활동가를 대상으로 한 청춘극장은 두 개의 범주로 나눠 사업을 실행한다. 문화다양성 인식 확산을 위해 매개자 라운드테이블·풀뿌리자조모임 발굴 육성·문화다양성 정책위원회 운영과 전북형 문화다양성 프로그램 발굴지원 매개자 육성을 통한 세대를 잇는 문화 활동 기획을 펼친다.

또한 재단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예진흥기금 문화예술 기관 연수단원 지원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전북상상공연 연수단원 6명을 채용할 수 있게 됐다. 사업은 문화예술분야 전공 졸업자들의 연수지원을 통해 현장 실무 능력을 배양하고 사회진출 기회를 제공한다. /정해은 기자

따별로 풀어보는 오늘의 운세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 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lsilab.com/

<2017년 2월 23일>

▷쥐띠
48년생: 타인에게 베풀면 그 이상의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운이다.
60년생: 일찍 움직여야 좋은 운이니 미루지 말고 진행하라.
72년생: 작은 일은 가능하나 큰일을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르니 주의하라.
84년생: 회사원의 도움이 따르니 상황을 잘 모면할 수 있을 것이다.

▷소띠
49년생: 매사 큰 움직임은 삼가고 때를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
61년생: 분주하기는 하나 분주한 만큼 이득을 얻기는 어려운 운이다.
73년생: 혼자서는 불가능하나 힘을 합치면 가능한 일이다.
85년생: 뜻밖의 귀인이 도움을 주게 된다.

▷호랑이띠
50년생: 외부적으로는 불리한 상황이나 앞으로 나아가지 말고 내실을 다져야 하는 운이다.
62년생: 가물에 시달리다 단비를 만난 격.
74년생: 오후 3시부터 5시 사이에는 가급적 원행을 삼가는 것이 좋겠다.
86년생: 욕심을 부리면 그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는 운이니 주의하라.

▷토끼띠
51년생: 힘든 상황에 놓였던 사람은 한숨 돌릴 수 있겠다. 좋았던 사람은 어려워지지 대비하라.
63년생: 도처에 귀인이 있으니 도움을 받으면 쉽게 해결된다.
75년생: 모질고 귀를 힘들게 하는 소리가 도움이 되는 운이다.
87년생: 정신적으로 편안하지 않은 운이다.

▷용띠
52년생: 동기간의 도움을 받으면 생각보다 쉽게 이룰 수 있다.
64년생: 남자는 여성으로 인해 좋은 일이 생기는 운이다.
76년생: 들을 얻었으면 하나를 보내야 하는 운이니 짐작은 금물.
88년생: 내 것이 아닌 것에 욕심을 부리면 화가 발생하니 마음을 비워라.

▷뱀띠
53년생: 매사 하고자 하는 일에 방해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운이니 조심하라.
65년생: 예상보다 상황이 좋게 돌아갈 수 있다.
77년생: 건강에 주의해야 하는 운. 몸의 작은 신호에도 귀를 기울여라.
89년생: 큰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평안하게 지니가는 운이다.

▷말띠
54년생: 주변에 자신에게 호의적인 사람이 생기는 운이다.
66년생: 지나치게 나서면 구설수가 따르게 되니 상황에 따른 대처가 필요하다.
78년생: 주변 상황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운이다.
90년생: 억의 없이 행동한 일에 관련한 상황이 발생하는 운이다.

▷양띠
55년생: 내무에서는 결단이 필요한 때다.
67년생: 정신적으로 소모가 많이 되는 운이니 한꺼번에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마라.
79년생: 다른 사람과 부딪힐 수 있는 운이니 주의하라.
91년생: 변동하면 흥통하고 좋지이니 망설이지 마라.

▷원숭이띠
56년생: 사고수를 조심해야 하는 때. 원행은 삼가는 것이 좋겠다.
68년생: 금전으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니 주의하라.
80년생: 구설수, 시비가 따르니 언행에 삼가라.
92년생: 지나친 과단성은 주위 사람들의 문제를 야기하니 조심하라.

▷닭띠
57년생: 볼에 수확을 하려는 격이니 때를 기다려라.
69년생: 지금 현재는 답답하고 힘드나 차츰 운이 좋아질 것이다.
81년생: 변해 변화에 무리하지 말고 잘 적응해 나가라.
93년생: 천수시조가 있으니 매사에 순리대로 진행하면 편안해질 것이다.

▷개띠
46년생: 아직은 때가 아니다. 상황을 잘 살펴서 경거망동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8년생: 이성과 상대하면 반목이 많아지게 된다.
70년생: 시비가 따르니 불화가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뒤로 물러서라.
82년생: 좋지 않은 일이 몰려 다니오는 운이다.

▷돼지띠
47년생: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불화가 예상되는 운이니 주의하라.
59년생: 움직이면 이득이 있고 머물면 손해가 따른다.
71년생: 성급하게 행동하기는 일이 틀어질 수 있으니 조심하라.
83년생: 매사 모든 일에 대한 계획을 철저하게 세운 후에 움직여야 한다.